

[종합·해설]

양형일 의원 후원금 3억 1위

■ 광주·전남 국회의원 내역 분석

**강기정·최인기·김동철 의원 뒤이어
평균 후원금 모금액 1억 7,973만원**

지난해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결과, '여소야대'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1억7천973만원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06년도 정당·후원회 등의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정당별 수입내역은 한나라당 204억, 민주노동당 15억원, 민주당 12억원, 국민중심당 5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있어서 평년보다 2배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에도 우리당 의원들의 후원금은 전년보다 35억원 증가해 20.2%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후원금은 58억원 증가해 전년 대비 40.1%라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후원금 모금 한도인 3억원을 채운 의원 11명은 포함한 의원별 모금액 상위 20명에는 한나라당 의원이 19명, 우리당 의원 9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으로 여소야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양형일 의원(동구)이 모금 한도인

■ 2006년도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단위: 원)

후원금명	소속정당	선거구명	모금액
임현일	우리당	광주 동구	300,064,000
임동연	우리당	서구갑	145,670,000
정동재	우리당	서구을	29,573,730
지방선	우리당	남구	188,073,700
김기정	우리당	북구갑	297,383,500
김태홍	우리당	북구을	170,540,000
김성곤	우리당	여수갑	164,618,000
주승용	우리당	여수을	176,212,500
서길원	우리당	순천시	209,287,000
윤문근	우리당	광양 구례	213,993,271
유선호	우리당	장흥 영암	104,060,000
이영호	우리당	진주 원도	195,376,000
이상열	민주당	목포	77,937,556
최인기	민주당	나주 화순	287,620,001
김효석	민주당	담양·곡성·장성	218,690,000
신중식	민주당	고흥·보성	181,630,000
채일병	민주당	해남·진도	32,000,000
이낙연	민주당	영광·함평	203,071,000
한희갑	민주당	무안·신안	111,622,200

(소속정당은 2006년 말 현재)

모금한 의원은 김효석(담양·장성·곡성, 2억1천869만원), 우윤근(광양·구례, 2억1천399만원), 서갑원(순천, 2억928만원), 이나연 의원(영광·함평, 2억30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동재 의원(서구을)은 2천957만원의 후원금을 모금, 지역 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장관직을 사퇴한 데다 바다 이야기 파문 등으로 후원금 모금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10·25 보선을 통해 국회에 진입한 채일병 의원(해남·진도)은 한 달여 동안 3천200만원의 후원금을 거두었으며, 이상열 의원(목포시)은 7천793만원의 후원금을 모금, 지역 의원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액수를 기록했다.

후원금 기부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에 힘입어 일반인들의 '소액 다수 기부문화' 확산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부건수는 모두 38만8천 건으로 전년도 28만2천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반면 1건당 후원금 기부액은 11만6천원으로 전년도 12만4천원보다 줄어들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기념회장에 수많은 지자체들이 몰린 가운데 이 전 시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김호원 원내대표가 밝은 표정으로 함께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747운동' 제안

<7%성장-4만달러-7대 강국>

출판기념회 YS 등 각계인사 2만여명 참석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3일 대선을 향한 '출발'을 선언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3권의 애세이집 출판기념회를 갖고 자신의 인생여정을 소개하면서 대권을 행한 포부를 밝혔다.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예상(5천명)을

훨씬 뛰어넘는 2만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강재섭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

현역 의원만 63명이 자리를 함께 해

여론지지율 1위 대선주자로서의 위

상을 실감해 했다.

이 전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

한민국호가 항로를 잊고 있다. 선택한

항로를 벗어나더니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별씨 10년제"라며 "이제 저는 바쁜 항로를 찾아내고 퍼슬 환진하기 위한 길을 찾아나서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성장을 7%, 국민 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진입 등 '대한민국 7·4·7'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자"면서 대권포부를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이 전 시장의 저서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경험담을 기록한 '온몸으로 부딪쳐서', 모친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을 담아낸 '어머니', 정책 투어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펴낸 '흔들리지 않는 약속' 등이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3일 대선을 향한 '출발'을 선언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3권의 애세이집 출판기념회를 갖고 자신의 인생여정을 소개하면서 대권을 행한 포부를 밝혔다.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예상(5천명)을

훨씬 뛰어넘는 2만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강재섭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

현역 의원만 63명이 자리를 함께 해

여론지지율 1위 대선주자로서의 위

상을 실감해 했다.

이 전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

한민국호가 항로를 잊고 있다. 선택한

대전서 경선 불참 가능성 시사

당안팎선 탈당·범여권행 추측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다른 측근도 "당이 경선 룰을 결정하는 18일 전후로 손 전 지사가 어떤 결심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면 현재 캠프의 공식 입장은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경선시키는 주석 전후, 선거인단 수는 100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최후통첩' 제안을 당에 던져 놓은 만큼 최종 응답을 기다리면서 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직 구청장·군의원 500만원씩 내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전직 구청장으로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보좌관으로부터 2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2명의 군의원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지방구의원은 200만원의 후원금을

었으며 구의원에게도 15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이정일 전 의원은 남은 정치자금의 일부를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후원금으로 기부,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 "정권 겨냥 수사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라"

국무회의서 검찰 수사행태 강력 비판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제이유 사건 수사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 의혹 사건이 도미에 올랐다.

노 대통령은 김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제이유 사건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장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령이 직접 검찰수사에 언급하는 것은 피장이 클까 우려돼 일부러 하지 않았다. 그동안 빛은내 내 총장을 이해해달라"며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먼저 "검사들의 경우 수사를 하다 보면 영웅심도 있을 수 있고, 그 점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 명예 같은 게 없으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며 검찰의 수사환경에 이를 해를 표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 장관의 검찰 관련 보고가 있은 직후 유

시민 복지장관이 검찰을 비판한 뒤에 나온 것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환보수석이 전했다.

유 장관은 "청와대 전 경상비서관이 무혐의로 결론났다면 그간 언론에 의해 실증됐던 비서관의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되느냐"면서 "시중에는 요즘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치면 영웅이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인가. 이는 국가기강의 문제 아닌가"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학규 '중대 결심' 임박했나

대전서 경선 불참 가능성 시사

당안팎선 탈당·범여권행 추측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3일 대선을 향한 '출발'을 선언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3권의 애세이집 출판기념회를 갖고 자신의 인생여정을 소개하면서 대권을 행한 포부를 밝혔다.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당초 예상(5천명)을

훨씬 뛰어넘는 2만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강재섭 대표를 위시한 한나라당

현역 의원만 63명이 자리를 함께 해

여론지지율 1위 대선주자로서의 위

상을 실감해 했다.

이 전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

한민국호가 항로를 잊고 있다. 선택한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다른 측근도 "당이 경선 룰을 결정하는 18일 전후로 손 전 지사가 어떤 결심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면 현재 캠프의 공식 입장은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경선시키는 주석 전후, 선거인단 수는 100만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최후통첩' 제안을 당에 던져 놓은 만큼 최종 응답을 기다리면서 당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비 무료 모집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과정)

주택관리사·사무자동화·정보화기초1,2

재직자파업교육 RFB

교육기간 : 4/2~6/2 (18 : 00 ~ 22 : 30)

주택관리사 주택반토트, 일

교육기간 : 5/5~7/1 (토 14 : 00 ~ 18 : 00, 일 10 : 00 ~ 17 : 00)

시민자동화 월~금

교육기간 : 3/18~4/25 (화요일 제외)

정보화기초1

교육기간 : 3/19~4/4 (화요일 제외)

정보화기초2

교육기간 : 3/19~4/8 (화요일 제외)

국가직/ 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h2